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1. 1. 17(월) 17:00		
배포일시	2011. 1. 17(월) 14: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조원경(2150-7610)	담당자	진승우 사무관(2150-7614)

제목: 한·인도 경제적 성과 및 협력 방안

- 윤증현 장관은 2011. 1. 17(월) 제2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인도간 경제협력방향을 논의할 예정
- 최근 신흥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인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과 인도간 경제성과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첨부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함
- 특히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CEPA) 발효 1주년을 맞아 그 효과를 분석
 - CEPA 체결에 따라 '10년 한국과 인도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44.5% 증가할 전망**
 - ※ 한국 '10년 교역증가률^o(%) : 전체(28.3), 중국(32), 미국(35), 일본(28.5)
 - CEPA 체결에 따라 '10년 무역수지 흑자액은 57억불로 추정되어 전년동기 대비 **47.6% 증가**
 - * 對인도 무역수지 규모(억불)
- ('90) 1.5 → ('00) 3.4 → ('09) 38.7 → ('10^o) 57.1
 - ※ 별첨 : '한·인도 경제적 성과 및 협력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한·인도 경제적 성과 및 협력 방향

- ◆ 최근 신흥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인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과 인도간 경제성과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

I. 검토 배경

- 1973년 수교 이후 한-인도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꾸준히 발전
 - 특히, 작년 1월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
 - *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국가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카자흐스탄 등 9개국
-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난 3년간 평균 7%대의 성장을 달성한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에서의 영향력이 지속 증가
 - * 인도 경제성장률(%) : ('08) 6.4 → ('09) 5.7 → ('10^e) 9.7
 - 세계는 높은 성장잠재력과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한 인도를 중국에 견주어 주목
 - * 英 이코노미스트紙는 풍부한 노동력, 민주주의 정치제도 등을 이유로 '13년 이후 경제성장률에 있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10.10)
-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제약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신흥국 성장을 주도하는 인도와의 경협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
 - 양국간 경협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한-인도간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

II. 양국간 교류에 따른 분야별 경제적 성과

<최근 20년간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역규모 비교>

- 1990~2009년간 GDP는 한국 3.08배, 인도 3.79배 성장
 - 우리나라 GDP는 2,704억불에서 8,325억불로 증가
 - 인도 GDP는 3,259억불에서 1.2조불로 증가
- 1990~2009년간 교역규모는 한국 5.56배, 인도 9.08배 증대
 - 우리나라 수출은 650억불에서 3,635억불로 증가
 - 인도 수출은 179억불에서 1,626억불로 증가

< 최근 20년간 한국과 인도의 경제규모 >

(단위: 억불)

	1990		2009	
	한국	인도	한국	인도
G D P	2,704	3,259	8,325	12,369
수 출	650	179	3,635	1,626

자료: IMF, WTO

1. 교역

□ (교역규모) 작년 1월 체결된 CEPA 등에 힘입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양국 교역규모는 약 24배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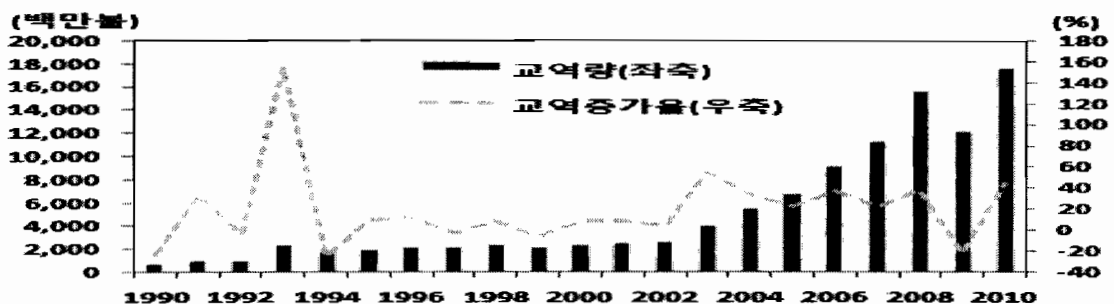
* 양국간 교역 규모(억불)

- ('90) 7.2 → ('00) 23.1 → ('09) 121 → ('10°) 175.7

- CEPA 체결에 따라 '10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44.5% 증가할 전망

※ 한국 '10년 교역증가률(%) : 전체(28.3), 중국(32), 미국(35), 일본(28.5)

<한-인도간 교역량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 1990~2010년간 우리의 對인도 수출은 약 27배 증가

- 2010년 10대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선박,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석유화학합성원료 등 고부가가치 중화학 공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

* 對인도 수출 규모(억불) : ('90) 4.3 → ('00) 13.2 → ('09) 80.1 → ('10^e) 116.4

□ (수입) 1990~2010년간 우리의 對인도 수입은 약 21.1배 증가

- 2010년 10대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나프타, 면사, 합금철, 알루미늄괴, 아연괴 등 원재료가 대부분을 차지

* 對인도 수입 규모(억불) : ('90) 2.8 → ('00) 9.8 → ('09) 41.4 → ('10^e) 59.2

對인도 주요 수출입 품목(2010.1~11월)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 %)

주요품목별 對인도 수출			주요품목별 對인도 수입		
품목	금액	증감율	품목	금액	증감율
1. 자동차 부품	1,257	34	1. 나프타	2,783	44.3
2. 선박	715	151.5	2. 면사	303	67.7
3. 합성수지	688	42.3	3. 합금철	210	153.4
4. 윤활유	477	42.6	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72	439.1
5. 무선통신기기부품	367	21.2	5. 박류	119	△31.1
6. 냉연강판	363	38.8	6. 기타정밀화학원료	109	17.7
7. 열연강판	355	18.6	7. 아연괴 및 스크랩	91	264
8. 무선전화기	284	78.2	8. 기초유분	90	133.4
9. 가열난방기	292	△9	9. 기타금속광물	86	△56.1
10. 석유화학합성원료	276	214.4	10. 철광	80	23.8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무역수지) 수교 초기단계(1973~1977년)에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

- CEPA 체결에 따라 '10년 무역수지 흑자액은 57억불로 추정되어 전년동기 대비 47.6% 증가

* 對인도 무역수지 규모(억불)

- ('90) 1.5 → ('00) 3.4 → ('09) 38.7 → ('10^e) 57.1

2. 투 자

가.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

□ 2000년 이후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는 지난 **20년간('90~'09, 누계기준) 25억불 기록**

- 2006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진출은 저조하였지만 **2007년 이후 인도경제의 고성장에 견인하여 투자규모가 빠르게 증가**

<對인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불)

연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90~'09
투자액	43	21	49	113	150	328	288	342	250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된 경향**

<對인도 업종별 투자현황(2010.9월 누계)>

(단위 : 건수, %, 백만불)

업종	투자건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제조업	1,322	71.1	1,583	84.4
도매 및 소매업	188	10.1	157	8.4
건설업	70	3.8	34	1.8
기타	280	15	102	5.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나. 인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 지난 3년간('07~'09) 평균 **6백만불에 불과하여 미미한 수준**

<인도의 대 한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불)

연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90~'09
투자액	0.8	0.7	53	3.7	2.5	9.5	6.4	3.4	84

자료 : 지식경제부

Ⅲ.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인도의 중요성

- ① (거대한 내수시장)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12억명, UN), GDP 1.4조불('10년^e, IMF)의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
- 높은 경제성장률, 중산층 확대에 따른 구매력 증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큰 소비시장으로 역할 증대 예상
 - * 맥킨지는 2025년까지 인도의 평균가계소득이 3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 5위 규모의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한·인도 CEPA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체결·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거대소비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
 - 2010년대 빈곤층(Base of the Economic Pyramid, BOP)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BOP시장이 매우 유망할 것으로 전망
 - *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는 인도에서 하루 소득 1.56불 이하인 소득계층(BOP)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 95%로 추정
 - 우리는 그동안 중간소득이상 계층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바 BOP인구 비중이 95%에 달하는 인도의 BOP가 잠재적 중산층이 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인도의 BOP 산업 사례>

- ◇ (사례1) 인도의 SKS 마이크로파이낸스는 현대식 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서민금융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 제시
- ◇ (사례2) 모토로라는 가격이 30불인 휴대폰을 개발해 인도 저소득층에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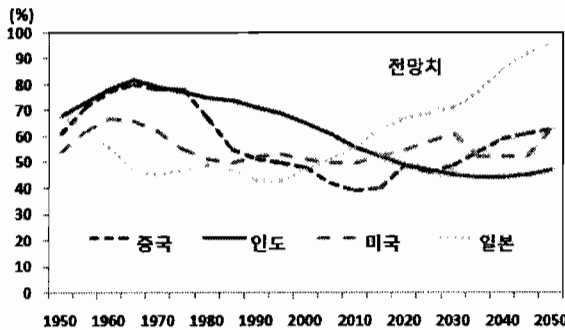
② (성장잠재력)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 경제구조개혁, 건실한 투자 여력 등에 힘입어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

○ (풍부한 노동력)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인도의 부양부담률*은 낮은 수준이고 향후 10년간 생산 가능인구도 1.35억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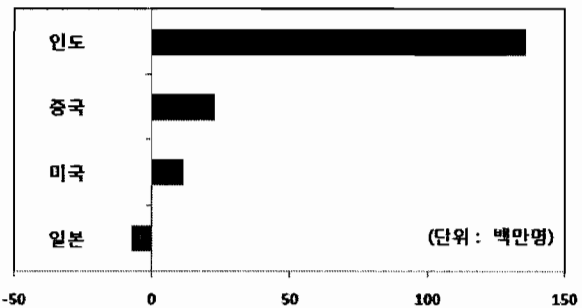
* 부양부담률= (0~14세 이하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UN인구 예측에 따르면 2030년 인도 인구는 14.5억명으로 중국을 추월할 전망(세계최대 인구보유국)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총인구의 50%를 상회하고 65세 이상 인구도 약 5%에 불과해(중국 7%)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임

<주요국 부양부담률 추이 및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가량('10~'20)>



자료 : UN 인구통계



자료 : UN 인구통계

○ (지속적인 구조개혁) 관세 장벽 및 'licence raj'* 축소 등의 구조개혁이 인도경제의 성장을 견인

* licence raj는 1947~1990년까지 존재하던 정부 규제로 당시 민간은 동 규제의 영향으로 상품 생산 시 최고 80개기관의 승인이 필요

- 구조개혁의 결과 Arcelor(철강회사), Tata Motors(저비용 자동차 생산) 등의 세계 유명 인도기업들이 등장

○ (건설한 투자여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및 저축률 증가에 힘입어 인도경제는 투자여력이 확대

- 높은 성장잠재력, 경제개방 확대 등으로 인도가 대체투자처로 주목받으며 FDI 유입액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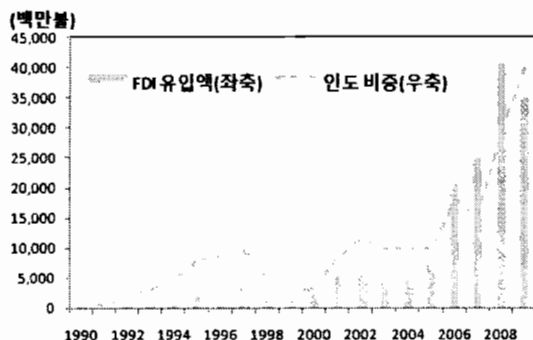
* 2006년 이후 인도로의 FDI 유입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세계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으로 증가

- 높은 가계저축률에 기인하여 2005년 이후 인도의 총저축률은 꾸준히 GDP 대비 30% 이상을 기록

* 주요국 총저축률('09, GDP 대비 %,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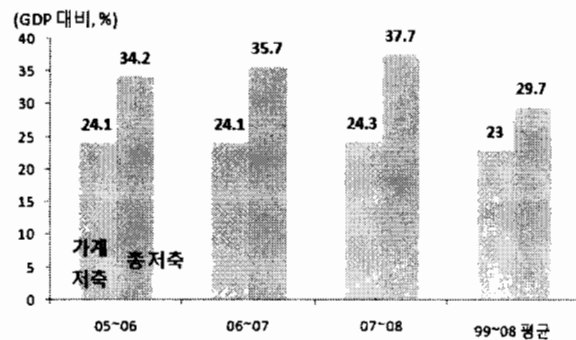
- 인도(34), 중국(54), 브라질(15), 러시아(23), 미국(10), 일본(24), 영국(12)

<인도 FDI 유입액 및 비중>



자료 : UNCTAD

<인도 저축률 추이>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③ (국제무대 발언권 증대) 인도는 G20, BRICs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흥국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

○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신흥국으로의 IMF 지분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도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

* 인도의 IMF 지분율 변화(%) : 2.44 (11위) → 2.75 (8위)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협력 등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서는 인도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

IV. 향후 경제협력 추진 방향

- ① **(교역 활성화)** 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및 규모를 감안하여 양국간 **교역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 한국 교역량 비중(%) : **인도(1.9)**, 중국(21.1), 미국(10.2), 일본(10.4)
 - **한-인도 CEPA 수출 활용률***은 **16.4%**에 그쳐 한-칠레 FTA 활용률(97%)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관세청)
 - * 실제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특혜관세 대상품목 수출액
 - 교역대상국인 인도에 대한 **정보 제공 채널을 다양화**하여 수출기업들이 **CEP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금융협력 강화)**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에 따라 국내은행의 인도 내 **지점개설 증가**가 필요한바 인도 금융당국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
- 인도는 지금까지 **연간 2개 이하의 외국계 은행에만** 지점 설치를 허가하는 등 외국계은행의 인도 진출을 규제
 - 한-인도간 CEPA에 따라 국내 은행은 인도 진출시 '**호혜적 대우(Favorable Consideration)**'를 수혜
 - * 인도 법령과 규정 충족시 CEPA에 따라 향후 4년간 최대 10개의 한국 은행 지점 개설이 가능
- ③ **(서비스 교류 확대)** 서비스 수출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인도 CEPA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모색
- 특히, 양국의 영화산업 경쟁력을 감안할 때 한-인도 공동으로 **시청각 서비스 프로그램 제작**을 모색
 - 전문 인력 확대 개방에 따라 양국간 **우수 인력 진출 분야를 공동 연구**하여 상호 교류 활성화

④ (인프라 사업 참여) 향후 10년간 인도정부는 인프라 예산비중을 증가시킬 계획인바 우리기업의 철도, 통신, 원전, 항만 등의 인프라 사업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 강화

- 인도정부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3~'17)을 통하여 1조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

<인도의 주요 인프라 사업 계획>

- ◇ (철도) 2020년까지 2만 5,000km의 추가 노선건설
- ◇ (전력) 13-17년까지 100GW 규모의 설비를 추가 건설
- ◇ (원전) '32년까지 63GW 규모의 원전설비를 확충
- ◇ (항만) 주요 항만 485MT, 소형 항만 345MT 규모 증설

-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지원 방안을 '11년 상반기 중 확정하여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

⑤ (BOP 및 중산층 시장 진출) 인도 현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BOP 시장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시장 개척 추진

- BOP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아시아(인구의 65%)의 상황을 감안하여 인도를 아시아 BOP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 우리기업이 강점이 있는 BOP시장 진출 분야를 발굴하여 ADB, 인도 정부, NGO 등과 협력하여 시장 진출

- BOP시장개척과 함께 향후 중산층 증가에 대비하여 소형 자동차, 가전, 통신서비스 등 유망 소비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추진

⑥ (정책협력 강화) 양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IT, 인력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ODA정책을 공조하고 아시아개발협력 회의를 활성화하여 남남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